

2008. 2. 18 제185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2. 18 제185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오사카府 가와니시市の '통행 피드백 프로그램'

### [해외출장 리포트]

일본의 블록 단위 주거지 개발

### 문화·디자인

1. '다문화'도 도시경쟁력...차이나 페스티벌 개최 (런던)
2. 장애인과 노인에게 '문화'를 배달합니다 (파리)
3. 삼바축제의 산실, '삼바도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4. 고객의 관점에서 관광서비스 품질 평가 (베를린)
5. 움직이는 청소년문화센터 (런던市 월템포레스트區)

### 산업·경제

6. 민간과 손잡고 경제활성화 사업 펼쳐 (요코하마)

## 목 차

### 건강·복지

7. 저소득층 복지는 ‘사회복지시티’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8. 방과 후엔 ‘키즈 클럽’으로 오세요 (요코하마)
9. 저렴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 (도쿄都 이타바시區)

### 도시환경

10. 기존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무상 교환 (런던)
11. 유전자 변형 식료품 마크 부착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州)
12. ‘그린 혁명’을 위한 예산계획 (런던)
13. 건축폐기물로 짓는 ‘해상도시’ (상해)
14. 태양열을 이용하면 돈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15. 탈온난화 캠페인 벌여 (일본 교토府)
16. 지하수 종합 안내책자 발간 (베를린)
17. 자연과수꾼, ‘레인저’를 모집합니다 (도쿄)

### 도시교통

18. 대중교통 개선에 1500억 원 투자 (브라질 쿠리치바市)
19. 오토바이 과속, 교통사고의 지름길 (브라질 상파울루市)

### 도시계획·주택

20. 수변공간을 살리면 지속가능한 도시 된다 (영국 카디프市)
21. 사회 소외층에게도 주거공간을! (파리)
22. 녹지가 풍부한 ‘사계(四季)의 거리’ 조성 (도쿄)

## [벤치마킹 사례]

### 오사카府 가와니시市的 ‘통행 피드백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일본 오사카府 가와니시市는 환경오염 등 교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이동 성향을 개인과 사회 전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관리하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M: Mobility Management)의 일환으로 ‘통행 피드백 프로그램’(TFP: Travel Feedback Programs)을 시행함.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는 교통수요 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와 비슷한 점이 많음. 하지만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개인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한 시책이라는 점에서 과금(課金)·규제·종류별 서비스 정책 등으로 교통수요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TDM과는 차이가 있음.
  - 통행 피드백 프로그램은 MM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임. 참가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와니시市는 ‘자동차의 즐거운 이용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명명함.
    - 참가자 개인의 통행 정보를 MM의 시행 주체에 제공하고 시행 주체는 개인에게 피드백 정보와 함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공함. 사전에 참가자의 개인정보와 교통행동 정보를 수집해 개인별 조언과 맞춤 정보를 제공함.
    - 개인의 교통행동에 따른 자동차 이용시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칼로리 소모량 등의 정보를 제공함. 실행계획을 자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할지 검토해 알려 줌.
    - 2003년 약 7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나 직장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동차 이용시간이 41%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6% 증가했음.

교통진단 기록카드

**さん の交通診断カルテ** 1)

ステップ1 あなたがお答えになった「3日間の移動のデータ」です。 2)

ステップ2 あなたのお答えに基づいて計算した、3) 3日間のCO<sub>2</sub>排出量とカロリー消費量で!

ステップ3 つまり、左の3日間の結果をまとめると、4) 5) あなたのCO<sub>2</sub>排出量は、

交通機関	あなたの回答	3日間の計算結果		
		6/15	6/16	6/17
マイカー (運転)	15分未満	2		
	15~45分	3	2	5
	45分以上			
マイカー (同乗)	15分未満			
	15~45分			
	45分以上			
その他のクルマ (運転)	15分未満			
	15~45分			
	45分以上			

あなたのCO<sub>2</sub>排出量は、

全体で、6)	15.1 kg
うち、クルマから 7)	13.2 kg (全体の 87 %)

あなたのカロリー消費量は、8)

全ての移動で、9)	425 kcal
うち、クルマ利用中に、10)	314 kcal (全体の 74 %)

- 주: 1) 000 씨의 교통진단 기록카드      2) 1단계: 귀하가 대답한 3일간의 이동데이터입니다.  
 3) 2단계: 귀하의 대답을 기초로 계산한 3일간의 CO<sub>2</sub> 배출량과 칼로리 소비량입니다.  
 4) 3단계: 결과적으로 좌측 3일간의 결과를 정리하면  
 5) 귀하의 CO<sub>2</sub> 배출량은      6) 전체적으로      7) 그 중 자동차에서  
 8) 귀하의 칼로리 소비량은      9) 전체 이동에      10) 그 중 자동차 이용 중에

<해설 및 평가>

- 교통수요 관리는 오래 전부터 일본뿐 아니라 세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지만,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는 최근에서야 일본의 일부 도시와 런던, 호주 퍼스 등에서 예비조사(Pilot Study) 개념으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음. 향후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여러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는 향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인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교통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수적임.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는 공익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교통행태를 변화할 의지를 가진 참가자에게 자신의 교통행태를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해 줌.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교통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세계 도시의 공통 관심사임.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전환과 보행·자전거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교통체계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 유도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 교통문제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임.
- 교통시설 확충사업뿐 아니라 교통수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교통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벤치마킹 시행방안>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법을 조합한 최선의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함.
  - TV, 신문, 잡지, 광고뿐 아니라 우편과 이메일 등 개인별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대상, 실시 주체,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주민, 직장인, 학생, 특정 대중교통 노선 이용자 등 다양한 참여자 가운데 시행목표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전입자는 정보수집 의향이 강하고 새로운 교통행동을 쉽게 형성함. 따라서 지역 버스노선 정보 팸플릿을 창구에 비치하기보다는 전입자가 전입신고할 때 적극 배포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임.

- 개인의 교통행동을 조사해 개인별 조언과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는 참여자와 실시주체 간에 2~4회 정도 개인별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므로 대규모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자치구에서 참여대상을 소규모로 선정해 참여자가 자신의 교통행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수정함으로써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벤치마킹 기대효과>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통해 자발적인 교통행동의 변화가 개인의 편의뿐 아니라 공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음.

- 홍보와 설득을 통해 교통 관련 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 스스로 교통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시설 공급정책 및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더불어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시행한다면, 한계에 이른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김승준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sjkim@sdi.re.kr)

# [해외출장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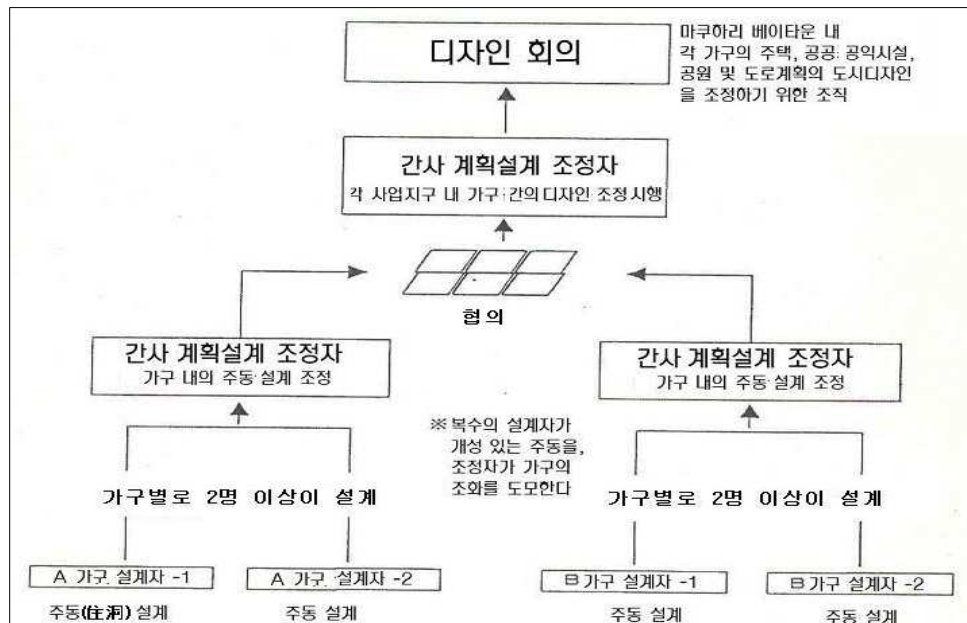
## 일본의 블록 단위 주거지 개발

### <출장 개요>

- 소규모 블록형 주택 재건축 정비모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10월 15~16일 일본 치바縣 마쿠하리 베이타운과 도쿄都 시노노메 공단(公團) 주택 단지를 방문해 블록 단위 주거단지를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주요내용>

-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디자인 조정시스템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
  - 블록, 존(Zone), 전체 단지 차원의 디자인 조정시스템을 도입함.
  - 각 블록별로 3~4명의 건축가를 고용해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되도록 하고, 블록 단위의 총괄 건축가가 디자인을 조정함.
  - 다시 몇 개의 블록을 그룹화해 존으로 나누고 존별 기본방향을 설정함. 존에 포함된 블록 건축가의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는 간사 건축가를 고용하는 등 몇 단계에 걸쳐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도록 조정함.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도시디자인 조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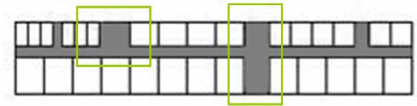


-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을 도입해 주변지역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함.
-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식이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3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민간에게 주는 것임. 실 거주자에게는 양도를 제한하지 않고 계약을 자유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함.

○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을 보여주는 시노노메 공단주택

- 신도시형 분양주택 공급이 주 사업분야인 도시재생기구(前 주택도시공단)는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 사업분야를 전환함.
- 시노노메 공단주택이 공공주택 정책 전환의 리딩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함.

- 도시 주거에 적합한 중복지 주택(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세대가 있는 주택)을 개발하고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함.



- 중복지 주택이 갖는 채광 부족과 조망 제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층마다 공용 테라스와 경관 테라스를 설치해 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함.



-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수나 생활방식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음.

중복지 주택의 각 층마다 설치된 테라스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다양한 주체와 전문 계획가가 참여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디자인 지침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 및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市가 추진하려는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 건축물의 개성 있는 디자인 유도,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접목할 수 있음.
- 분양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와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성창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ysc95090@sdi.re.kr)

### 1. ‘다문화’도 도시경쟁력...차이나 페스티벌 개최 (런던)

○ 런던시가 2008년 2월 6일부터 개최한 ‘차이나 페스티벌’(China in London Season)에 예년보다 더 많은 기관과 화랑, 박물관이 참여했음.

- 3년째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행사는 중국의 여러 단체와 비즈니스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중국의 예술가와 런던시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왕립 음악 아카데미(Royal Music Academy), 큐가든(Kew Garden), 런던동물원(London Zoo)이 연계해 중국의 역사문화를 보여줌.

·중국 연등 축하행사가 열렸으며, 베이징 모던 댄스단(Beijing Modern Dance Company)과 베이징 댄스 드라마 오페라하우스(Beijing Dance Drama and Opera House)가 런던시 명소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공연함.

·중국 영화 상영, 오페라 워크숍, 차 시음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192](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192))

#### >>> 전문가 검토의견

- 19세기부터 런던 동부지역에 정착한 중국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웨스트민스터 부근 제라드(Gerrard) 거리를 중심으로 오늘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함.

·1985년에 패루(牌樓)와 파고다 등 중국 상징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설 축제를 개최하면서 런던의 주요 축제가 됐음. 매년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2002년 설 행사부터 레스터 타운과 트라팔가 광장까지 확장해 축제를 열고 있음.

- 런던시는 다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이나 페스티벌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중국의 전통기념일 중 설 축제, 청명 축제, 용선(龍船) 축제, 추석 축제 등이 매년 런던 시내 주요 명소와 템스강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는 조만간 마포구 연남동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서울의 최초 공식 차이나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중국인이 주도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차이나타운 마케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차이나타운 조성은 서울시가 다문화를 포용하고 세계도시로 발전하는 단계며, 차이나타운을 명소로서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중국의 각종 전통 기념 행사를 연중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 2. 장애인과 노인에게 ‘문화’를 배달합니다 (파리)

○ 파리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책, CD, DVD, 점자책이나 음성 자료 등의 문화상품을 배달해주는 CASCAD(Cellule d'Assistance et de Services Culturels a Domicile) 서비스를 실시함.

- 2006년 10월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파리시 20區에 처음 문을 열었음. 2008년 1월에는 12區에 새로운 서비스센터가 개설됨.

○ 문화상품 배달 서비스 외에도 문화활동을 위한 외출에 동반자를 구해주는 서비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문화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

- 이들에게 적합한 교통기관과 극장, 도서관, 사회복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48646&portlet\\_id=12780](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48646&portlet_id=12780))

(A Paris, 2007년 겨울호)

## >>> 전문가 검토의견

- 파리市의 문화상품 배달서비스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형태의 ‘찾아가는’ 사회적 서비스며,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함께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적 서비스로 복지의 개념이 확장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문화욕구’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지역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자원봉사 등의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좀더 체계적인 문화서비스로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 장애인과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서비스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비스 자원을 우선 확보해야 할 것임.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 3. 삼바축제의 산실, ‘삼바도시’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삼바축제 공연 연습을 하기 위한 ‘삼바도시’를 계획함.

- 삼바 공연장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약 7만 7000m<sup>2</sup>의 대지를 확보했으며, 2009년부터 사용할 수 있음.
- 삼바도시에는 14개의 삼바학교가 준비한 공연 준비물을 보관할 수 있음.
  - 축제 용품 박물관, 공연 연습실, 여러 기술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됨.

(oglobo.globo.com/sp/mat/2008/01/10/sao\_paulo\_tambem\_vai\_ter\_sua\_cidade\_do\_samba\_-327952079.asp)

#### 4. 고객의 관점에서 관광서비스 품질 평가 (베를린)

- 베를린市 호텔 및 숙박업 협회와 독일 관광세미나협회가 통일된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제안함. 현재 독일 내 9개 州에서 이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 3단계의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평가함.
    -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그동안 고객이 높이 평가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여행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여행객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를린을 관광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함.

([www.servicequalitaet-deutschland.de](http://www.servicequalitaet-deutschland.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10/91935/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10/91935/index.html))

#### 한줄 뉴스

- 브라질 상파울루市,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운전 중 흡연 금지법’ 시행 예정

#### <베를린>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영화 및 비디오 부문 예술가에게 작업 수당과 프로젝트 보조금을 지원
- 2008년 1월 25일~2월 3일 ‘패션도시 베를린’의 발전을 위해 ‘베를린 패션주간’ 행사 개최

## 5. 움직이는 청소년문화센터 (런던市 월템포레스트區)

- 런던市 월템포레스트區는 버스를 개량해 이동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함. 이동 문화센터는 12~19세 청소년을 위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전하고 창조적인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음.
  - 버스 한 대에 6만 파운드(약 1억 1000만 원)를 투입해 노래·춤·인터넷 시설, 간이 주방, 라운지를 설치함.
  - 이동 문화센터는 기독교 청소년단체인 'Worth Unlimited'에서 처음 시작한 민간 단체 사업임.
    - 구청에서 민간단체의 성공사례를 인정하고 구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됨.
    - 현재 구청은 5개 순회지점을 매주 4회 이동하면서 운영하고 있음.



이동 청소년문화센터 모습

([www.worthunlimited.co.uk](http://www.worthunlimited.co.uk))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7/12/19/walthamforest\\_myvenue\\_feature.shtml](http://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7/12/19/walthamforest_myvenue_feature.shtml))

### 6. 민간과 손잡고 경제활성화 사업 펼쳐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 지원형 NPO와 함께 ‘경제의 새로운 담당자 창생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함. 현재 6개 단체가 이 사업에 착수했음.

- 2008년 들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계획을 새롭게 모집함.
  -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 창업 지원, 상업 및 관광산업 진흥, 산업 인재 육성 지원 등임.
- 응모한 사업계획 가운데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해 요코하마市가 실현 가능성을 조사함.
  -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와 성과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함.
- 사업계획의 선정을 위해 ‘경제의 새로운 담당자 제안형 프로그램’을 활용함. 프로그램의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안(2008년 1~2월)
  - 2단계: 제안된 사업을 전문가가 심사(2008년 3월)
  - 3단계: 사업화에 필요한 실현 가능성 조사(2008년 중)
  - 4단계: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전문가가 심사(2008년 9월)
  - 5단계: 인정(認定) 단체와 협력해 사업 시행(2008년 10월 이후)
  - 6단계: 사업 평가(매년 말)
  - 7단계: 6단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홍보활동 등 지원

([www.city.yokohama.jp/me/keizai/happyou/h19/200108.html](http://www.city.yokohama.jp/me/keizai/happyou/h19/200108.html))

## 건강 · 복지

### 7. 저소득층 복지는 ‘사회복지시티’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티’를 신설할 계획임.
  - 사회복지시티는 2008년 7월부터 운영되며, 약 1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임.
  - 사회복지시티에 사회복지전문센터와 다른 市의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임.
  - 위험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실시함. 또한 전문인력 양성소, 레스토랑, 학교, 기념센터, 노인을 위한 휴식처와 양로원도 운영될 계획임.

(www.rio.rj.gov.br)

### 8. 방과 후엔 ‘키즈 클럽’으로 오세요 (요코하마)

- 일본 요코하마市는 ‘방과 후 키즈 클럽’ 운영에 관심 있는 법인을 모집하고 있음. 지원 자격은 공익 법인, 사회복지 법인, 학교 법인, NPO 법인 등임.
  - 방과 후 키즈 클럽은 초등학교 1~6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과 생활공간을 제공함.
  - 이용시간은 평일 수업종료 후 오후 7시까지며, 토요일과 휴교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이용할 수 있음.
  - 오후 5시까지는 담당 자원봉사자와 함께 실내 놀이와 자유 놀이를 하고, 이후에는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숙제를 하거나 간식을 먹음.



- 기존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해 지도원의 책임 아래 운영했으나 2008년부터는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운영법인을 모집해 운영하기로 함.  
([www.city.yokohama.jp/me/kodomo/houkago/houkago/kidshoujinsetsumeikai.html](http://www.city.yokohama.jp/me/kodomo/houkago/houkago/kidshoujinsetsumeikai.html))

## 9. 저렴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제공 (도쿄都 이타바시區)

○ 도쿄都 이타바시區는 취업으로 인해 낮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육해 주는 가정복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가정복지원은 보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음.

- 가정복지원은 생후 43일~만 3세 미만 유아를 3명까지 보육할 수 있는데, 하루에 9시간 정도 보육하게 됨.
- 가정복지원은 유아 1명당 보호자에게서 월 1만 7000엔(약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區에서 받음.
- 복지원의 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區에서 8만 4200엔(약 75만 원)을, 유아의 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7만 4200엔(약 66만 원)을 지원함.

([www.city.itabashi.tokyo.jp/hoiku/shido/hoikusitu/kateiboshu.html](http://www.city.itabashi.tokyo.jp/hoiku/shido/hoikusitu/kateiboshu.html))

### 한줄 뉴스

<도쿄>

- 2008년 4월부터 75세 이상의 노령자가 기존보다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개선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실시
- 치요다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줄이고 이산화탄소 저감 중점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온난화 대책 조례 제정

## 도시 환경

### 10. 기존 전구를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무상 교환 (런던)

○ 런던시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막고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고자, 기존 전구를 가져오면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로 교환해주는 ‘전구 사면(赦免) 행사’(Light Bulb Amnesty)를 2008년 1월 11~13일에 열었음.

- 런던시민이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사용하면 매년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고, 연간 1억 3900만 파운드(약 2780억 원)를 절약할 수 있음.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는 기존 전구에 비해 수명이 60배 길고, 1년간 전기요금을 7파운드(약 14만 원) 절약할 수 있음. 에너지 사용률도 기존 전구보다 80% 낮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153](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153))

#### >>> 전문가 검토의견

- 백열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음. 백열전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에너지 절약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이 중요함.  
·도쿄도에서도 2007년 12월까지 백열전구를 생산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백열전구 박멸 작전’을 전개한 바 있음.  
·런던시의 전구 사면 행사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천의지를 홍보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됨.
- 서울시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시민 참여와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실현하려면, 이벤트성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도쿄도와 런던시에서 시행한 백열전구 교체행사를 벤치마킹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1. 유전자 변형 식료품 마크 부착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주)

○ 브라질 상파울루주는 2008년부터 유전자 변형 식료품 표시를 의무화함.

-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요소가 1% 이상 포함된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한 규정이 2003년 발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식료품에 유전자 변형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음.
  - 식료품 생산업체는 유전자 변형 요소가 1%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규정상 1% 함유량이 원자재를 가리키는지 최종 생산물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음.
-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 단체들은 함유량과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가 포함된 모든 식료품은 포장지에 명시하도록 주정부에 요청함.
  - 2007년 8월 주 법원은, 소비자가 유전자 변형 요소가 포함된 식료품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전자 변형 요소가 포함되면 함유량에 상관없이 표시할 것을 판결함.
- 식용유 회사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 테크닉 정보위원회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 콩기름은 변형상품으로 콩의 DNA나 단백질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어떤 유전자 변형 식품도 원 제품과 차이는 없다고 말함.
  - 유전자 변형 표시는 식료품에 대한 정보일 뿐 위험 경고가 아니라고 설명함.
  -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유전자 변형 콩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지적함.

([www.embalagemmarca.com.br/embmarca/content/view/full/5158?eZSESSID=embmarca=bd95c5ee8351eecf64e4539cf7f7e1dd](http://www.embalagemmarca.com.br/embmarca/content/view/full/5158?eZSESSID=embmarca=bd95c5ee8351eecf64e4539cf7f7e1dd))

## 12. ‘그린 혁명’을 위한 예산계획 (런던)

○ 런던시장은 런던시를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 시티’(Green City)로 만들고자,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발표함.

-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의 기후변화 자금(Climate Change Mitigation Fund) 2500만 파운드(약 500억 원),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의 기후변화 실행계획 기금(Climate Change Action Plan)인 3500만 파운드(약 700억 원)가 투자될 계획임.

- 구체적인 예산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런던 교통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주거지에서는 20mph(약 32km/h) 속도제한을 권장할 계획임. 속도제한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1990년대에 비해 40% 감소했음.
- 620만 파운드(약 124억 원)를 투자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보행과 공공 교통시설 이용을 홍보할 계획임.
- 템스강 하구역 재개발 지역의 교통망·핵심 상권·생태보전 지역과 인근 농촌지역을 연계하는 런던 동부지역 생태망(The East London Green Gri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60만 파운드(약 12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 통학 및 통근을 위한 카 클럽(Car Club: 자동차 함께 타기) 제도를 보조하기 위해 3000만 파운드(약 6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 앞으로 3년간 1800만 파운드(약 360억 원)를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 투자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35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5358))

### 한줄 뉴스

<런던>

- 서레이 카운티, 과속 차량에 경고사인을 표시하는 장비 설치
- 2000세대의 주택과 사무공간, 레저 및 의료 시설 등을 골고루 조성한 킹스크로스 도시재생사업에 ‘제5회 런던 도시계획상’ 수여
- 2008년 1월 초, 트라팔가 광장에서 러시아의 음악과 춤, 음식, 볼거리를 제공하는 ‘러시아 겨울 페스티벌’ 개최

### 13. 건축폐기물로 짓는 ‘해상도시’ (상해)

- 상해市는 해양국과 사회과학원 도시발전연구센터 등과 함께 ‘해상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함.
  - 해상도시 건설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시의 건축폐기물을 이용할 예정임.
    - 해상도시는 6000~7000m<sup>2</sup> 규모로 만드는데, 5400만m<sup>3</sup>의 폐기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통계에 따르면, 상해市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은 약 3만 7000톤임.
  - 해상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 발전의 축을 외부로 확장하고 해양자원과 도시 건축폐기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장을 개척하게 될 것임.

(상해신문진보, 2008. 1. 15)

### 14. 태양열을 이용하면 돈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2007년 12월 가정과 기업에 태양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가정과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1만 달러(약 947만 원)를 지원하고, 가정에는 3000달러(약 284만 원)~5000달러(약 473만 원)를 지원함.
  - 이미 660개 이상의 건물이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했음. 市 담당자는 앞으로 10년간 1만 개 이상의 건물이 태양열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www.sfgov.org/site/mayor\\_index.asp?id=74406](http://www.sfgov.org/site/mayor_index.asp?id=74406))

## 15. 탈온난화 캠페인 벌여 (일본 교토府)

- 일본 교토府는 ‘탈온난화 행동캠페인 교토 네트워크’를 통해 2008년 2월 한 달 동안 교토 부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을 알리는 ‘탈온난화 행동캠페인 2008’을 벌임.
  - 교토府, 교토市, 교토 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가 캠페인에 참여함.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2월 1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조명을 일제히 소등하는 ‘교토 라이트다운’ 행사를 열.
    - 탈온난화를 주제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발표하고 참가자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탈온난화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함.
    - ‘교토 지구 환경의 날’을 알리기 위한 가두 홍보를 실시함.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을 상담해주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 상담소’를 설치함.
    - 교토府 온라인 환경 가계부에 등록해 에너지를 절약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아 교토 내 에코마켓에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교토 에코 저축’의 보급 확대를 추진함.

([www.pref.kyoto.jp/news/press/2008/1/1200640210091.htm](http://www.pref.kyoto.jp/news/press/2008/1/1200640210091.htm))

## 16. 지하수 종합 안내책자 발간 (베를린)

- 최근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는 지하수의 발생, 사용, 보호, 위해(危害) 등의 영역으로 분류해 지하수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한 정보 브로슈어 ‘베를린 지하수’를 발간함.
  -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브로슈어는 전문가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좋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한다.”고 말함.

([www.berlin.de/sen/umwelt/wasser/grundwasser](http://www.berlin.de/sen/umwelt/wasser/grundwasser))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09/9187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1/09/91874/index.html))

## 17. 자연과수꾼, ‘레인저’를 모집합니다 (도쿄)

○ 도쿄都是 불법행위 방지와 관광매너 향상을 통해 자연을 지키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레인저’(Ranger: 자연보호원)를 모집하기로 함.

- 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으면서 자연보호원 업무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임.

·레인저의 주요 업무는 관광객이 참조할 수 있는 관광매너 가이드라인 보급, 희귀동물 밀렵 감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산책길이나 안내판 점검 및 수리, 동·식물의 생태 등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관측 및 감시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8/01/22i1i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8/01/22i1i100.htm))

## 도 시 교 통

## 18. 대중교통 개선에 1500억 원 투자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승객 편의를 위해 2008년에 시내버스 교체 및 정류장 보수공사 등 다양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음.

-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3억 헤알(약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2008년에 市 최대 규모로 15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할 계획임.

·신규 시내버스 274대에는 GPS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정보 제공을 위한 MP3 오디오 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임.  
Euro 3 버전의 엔진을 부착해 Euro 1 버전 엔진에 비해 매연 방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예정임.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1790](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1790))

## >>> 전문가 검토의견

- 쿠리치바市の 대중교통 시설 개선사업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도시 규모에 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계획임.
  - 투자 대상이 주로 버스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세계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만큼, 대기질 개선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대규모 개선 프로젝트는 시의 적절함.
- 서울시의 경우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CNG 버스 공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주목받을 수준은 아니었음. 중앙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경기도와의 통합요금 체계 구축 등 양적 확대정책이 우선이었음.
  - 앞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전제로 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해 2차 대중교통 개혁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점이라 판단됨.

/김순관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digwan@sdi.re.kr)

## 19. 오토바이 과속, 교통사고의 지름길 (브라질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최근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도입함.
  - 2008년 1월 상파울루市 주요 도로 중 하나인 23 데 마이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제한속도 80km/h의 오토바이 전용차로로 만들. 2008년 2월부터는 핑네이로스과 티에테 강변고속도로 급행차로의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됨.
    - 강변고속도로에서 피크 시간에는 보통 1700~2000대의 오토바이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위반 시에는 85헤알(약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시정부는 강변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기술공사 직원과 변호관 자동인식 이동장비가 총동원됨.



- 상파울루市 강변고속도로에서는 90km/h의 속도와 대형 차량으로 인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 2006년에는 강변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7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35명이 사망함. 최근 2년 동안 강변고속도로에서 한 달 평균 사고 발생률이 62건에서 72건으로 증가함.

([www1.folha.uol.com.br/fsp/cotidian/ff2101200808.htm](http://www1.folha.uol.com.br/fsp/cotidian/ff2101200808.htm))

([www.estadao.com.br/geral/not\\_ger110185,0.htm](http://www.estadao.com.br/geral/not_ger110185,0.htm))

## 도시계획·주택

### 20. 수변공간을 살리면 지속가능한 도시 된다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는 하바나 선착장(Havannah Quay)을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을 발표함.

- 13만㎡의 산업유희지에 주택 및 사무공간 2000개소와 16층 높이의 호텔 등이 건설되며, 2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
- 수상택시 선착장과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다리가 건설됨.
- 100만 파운드(약 20억 원)를 투자해 버스와 수변 연계에 투자할 계획임.
- 창조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인큐베이터(Incubator) 공간, 인력양성 시설, 음악공연장, 지역 커뮤니티, 교육시설 등도 조성할 예정임.
- 2008년 말부터 약 6년간 하바나 선착장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쇠퇴하고 있는 카디프市의 수변지역을 살리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市 관계자가 강조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6609/Bay-regeneration-scheme-approved](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776609/Bay-regeneration-scheme-approved))

## 21. 사회 소외층에게도 주거공간을! (파리)

○ 파리가 부족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13가지의 내용을 담은 국가 프로젝트를 제안함.

- 주거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매·수용하거나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 대지와 빈 건물을 이용하도록 함.

·집주인의 집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임대 연대 프로그램’을 시행함.

- 특히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제안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임.

·노숙자에게 숙박시설 및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일드프랑스주에 노숙자용 숙박시설 5000개를 새로 만들.

·2001년부터 파리가 협동조합이 사회 주거시설 및 주택 5600세대에 재정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파리시내에 있는 노숙자 숙박시설 3000개소를 수리함.

·주거공간 마련 외에 노숙자에게 정신과 치료 제공과 응급 구호반 편성 등을 지원함.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이 공권력으로 사회 주거시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법’(DALO: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을 2008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 법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함. 2012년부터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시설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48606&portlet\\_id=12780](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7&document_id=48606&portlet_id=12780))

## 22. 녹지가 풍부한 ‘사계(四季)의 거리’ 조성 (도쿄)

○ 도쿄都是 민간 사업자와 함께 ‘무사시노 i 타운 사계(四季)의 거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무사시노 i 타운’은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서 주민끼리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뜻하고, ‘사계의 거리’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함.

-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의 특성을 살린 주택 시가지 정비
- 마을 만들기 계획에 따라 거리 경관 유지 및 보전
- 고품질·저가격의 단독주택 공급 실증실험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공원, 녹지, 상업시설, 탁아소,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단독주택 280세대 등을 정비할 예정임.

\* 차지인(借地人)이 지주에게 계약조건 이상으로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 이를 돌려받는 제도

([www.i-town.com](http://www.i-town.co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0/20gak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10/20gak300.htm))